

한국교원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 박홍서 교수

청주 외곽에 위치한 한국교원대학교. 서울 도심의 캠퍼스들과는 달리 평평하고 넓은 공간에 자리 잡은 건물들이 탁 트인 가을 하늘 만큼이나 여유롭다. 그 캠퍼스에 자리잡은 청람 천문대에서 박홍서 교수를 만났다.

“아침 일찍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모닝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교원대가 생긴 지 얼마나 되었죠?”

“1984년에 발족해서 1985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때 공채를 통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벌써 강산이 두 번 바뀌고도 몇 년이 더 지난 얘기네요. 그전까지는 공주사대에 있었고요. 대학원을 마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쪽 사범대에 몸담고 있습니다.”

“사범대를 택하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사실 이유라 할 것도 없습니다. 1970년대 당시만 해도 천문학을 공부해서 갈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습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얘기죠. 졸업생의 대부분은 전산학과 등 천문학과 관련 없는 곳으로 많이 갔습니다.”

“천문학이 유망한 학문도 아니었는데 선택을 하신 것을 보면 천문학에 남다른 관심이 있으셨나봐요?”

“별에 대한 관심 같은 건 없었어요. 학생 때 취미는 햄(HAM)이

라고 하는 아마추어무선이었습다. 요즘은 거의 하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햄을 하게 된 것도 사연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음악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중학교 때 음악을 들어야 하는데 집에 전축이 없었어요. 레코드판 파는 곳이나 전축이 있었을 만큼 귀하기도 했고 비쌌으니까요. 그래서 전축을 한번 만들어서 음악을 들어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방에 가보니 무선회로집이라는 책이 있더군요. 그 책을 보고 무작정 납땜질해서 전축 비슷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 모든 것은 음악에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공들여 만든 전축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첫 작품은 실패! 회로에 대한 기본 개념 없이 만들었으니 소리가 날리 만무했다.

“뭘 알아야지 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왜 소리가 안 나는가를 알기 위해 본격적으로 전자회로를 공부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 송신기와 수신기란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마추어무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가 1950년대 후반

이었죠. 우리나라에는 전자기기란 게 전무하던 시절입니다. 청계천에 가서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기기들을 구해서 개조하고 조립해서 송신기를 만들었습니다.”

햄에 푹 빠진 박홍서 교수는 처음 전자공학과를 생각했지만, 보다 근원적인 것을 알고자 물리과 진학을 결심한다. 그러나 1지망이었던 물리과는 떨어지고 2지망인 천문학에 합격하게 된다. 취미였던 음악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결국 천문학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천문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은 갈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햄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전파천문학을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천문학과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햄 활동을 하시다보면 재미있는 일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1960년대 초나 돼서 정부에서 아마추어무선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개인이 무선 통신을 한다는 건 바로 간첩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실제로 허가 나기 전에 무허가로 통신하다가 경찰서를 왔다갔다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허가가 나고 한창 활동을 하던 어느 날 교신을 하는데 몽고에 있는 햄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몽고는 적성국이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혼이 좀 났었습니다. 요즘에야 세계 어디든 휴대 전화가 되고, 인터넷이 발달하다보니 햄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참 재미도 있었고, 낭만도 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 전파천문학을 하고자 했지만 전파천문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생소했던 국내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주로 한 것이 광학 관측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측 장비라고는 망원경만 달랑 있을 뿐 변변한 관측 기기 하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결국 직접 광전 측광기를 만들었습니다. 전축을 만들던 손재주가 빛을 발휘한 것이죠. 공주사대 시절에도 측광기를 만들어서 관측을 했습니다. 그러다 교원대가 개교한다는 얘기를 듣고, 신설 학교면 천문대를 지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1년에 완공된 것이 지금의 청람천문대이다. 1m급 망원경을 원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16인치밖에 올릴 수 없었다. 다만 독립된 천문대 건물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것에 만족해야만 했다.

“당시 대부분의 대학 천문대는 건물 옥상에 부속 시설로 지어진 형편이었습니다. 독립된 천문대를 갖게 된 것은 저희 학교가 처음일 겁니다.”

## 열약했던 과거, 그러나 밝은 미래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천문대(현 한국천문연구원) 대장직을 맡았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일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슈메이커-레비 혜성의 목성 충돌이 기억나네요. 당시까지 혜성이나 소행성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이 있었지만, 그게 우리 눈앞에서 벌어질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또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이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몹시 궁금했고요. 바다에 작은 돌덩이 던진 정도로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연구원에는 관련 사진을 받으려고 온 기자들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정년이 몇 년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계획은 어떠신지요?”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나, 목성 충돌과 같은 우주적인 사건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험해볼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어렸을 적 음악을 좋아했다는 단순한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도 어찌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흥미롭고 재미있지 않습니까!”

